"10만 달러 간다" vs "최악의 거품"

16일 美뉴욕 거래소 5만 달러 돌파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 소식 기폭제
대형 금융사들도 자산 인정 잇따라
"가격 변동 심해 신중히 접근해야"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5만 달러(약 5500만 원)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쓴 가운데,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16일 오전 미국 뉴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만584달러를 기록하며 5만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에서도 16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5520만 원대를, 업비트에서 5550만 원대를 기록했다. 17일 오전에는 다소 내려 빗썸에서 5468만 원, 업비트에서 5465만 원에 거래됐다. 암호화폐는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 가격이 내린 것은 5만 달러를 돌파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가격 급증은 기관투자자들의 잇따른 시장 진입 때문이다. 테슬라가 15억 달러(약 1조6519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한편 전기차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됐다. 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정보기술 업체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6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도 호재다. 뉴욕멜론은행은 고객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부를 신설했다. 마스터카드도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이어지며 10만 달러(약 1억 1100만 원) 도달도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말 2만 달러에 육박하다 2018년 3000달러대로 80% 이상 폭락 당시에는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과거 급등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관과 개인이 나란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쌍끌이 랠리를 펼친다는 것. 기관의 뭉칫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돼 미래사용 가치에 대한 의문을 일정 부분 해소한 덕에 개인투자자가 추가로 더 몰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급증에 비해 추가 채굴 시간이 걸려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포문을 열고 굴지의 금융사들도 뛰어들었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제도권 편입 및 자산군 편입 기대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실질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걷히지 않아 3년 전 폭락 사태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비트코인은 최악의 거품이며 저금리 시대 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투기판이 됐다는 회의론과 함께,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규제 리스크도 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트래블버블·백신비자'…안전 해외여행 논의 급물살

비격리 관광 대책 마련 본격화
"코로나 청정지역 대상으로 협상"

정부가 경영위기에 시달리는 관광 관련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방역안전을 전제로 하는 해외여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적극 검토하는 카드는 트래블 버블과 백신비자다.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관광·여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액이 17조 원이 넘는 관광산업의 재개를 위해 신속PCR검진 방식을 도입을 추진하고, 코로나 음성 비자와 백신비자 협약을 통해 자가격리없이 관광하는 방안을 코로나가 청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 장관

방역 우수지역 사이에 자유로운 여행교류를 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정부 당국자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안전이 보장된 거품(Bubble) 안에서는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고 그 외 국가나 지역과는 왕래를 제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그동안 문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황희 장관은 16일 간담회에서 "전문가, 업계와 함께 국제관광시장 조기 회복 전담조직(TF)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버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코로나 음성 비자와 백신비자 역시 검진결과가 1시간 안팎에 나오는 신속PCR 검사의 일반사용 승인 여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서울세계로병원, 내달 2일 개원

관절·척추·내과·건강증진센터 중점

관절·척추·내과·건강검진센터를 중점으로 하는 서울세계로병원이 서울 송파구에 3월 2일 신규 개원한다.

서울세계로병원은 최소침습 최소절개 무릎인공관절 수술 등의 의료기술과 최신형 MRI, CT, 초음파 등 최신의료정보시스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최첨단 검진기기와 전문 의료진이 원활하고 체계적인 협진으로 치료 관리할 예정이다.

정재훈 서울세계로병원 원장은 "서울세계로병원은 관절·척추·내과·건강증진센터를 중점으로 진료한다. 질병 치료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 진단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로병원은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6년 연속 '무릎인공관절수술 1000례 이상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0 노인의료나눔서비스 대상' 의료안내서비스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 의료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서울세계로병원 조감도

날씨와 생활

18일(목)

서울	인천	수원
10/0	0/0	10/0
-8 / 0	-8 / 0	-9 / 1

춘천	강릉	청주
20/0	0/0	20/0
-12 / 2	-8 / 4	-8 / 1

대전	전주	광주
30/20	60/20	60/20
-8 / 1	-7 / 3	-6 / 4

대구	울산	부산
20/0	20/0	20/0
-7 / 3	-7 / 3	-6 / 4

창원	제주	지역 / 날씨
20/0	60/60	강수 확률 (오전/오후)
-6 / 4	1 / 5	최저 / 최고기온℃

해뜸 07:18 해짐 18:14 달뜸 10:39 달짐 00:00

산 날씨

북한산	-11/2	내장산	-7/0
설악산	-9/3	무등산	-6/1
오대산	-10/2	주왕산	-12/1
속리산	-11/0	지리산	-6/3
계룡산	-9/1	한라산	0/7

바다 날씨

인천송도	-8/0	안면도 꽃지	-8/0
제부도	-9/1	변산반도	-5/1
경포대	-8/4	거문도	-4/3
속초	-9/3	해운대	-6/4
대천	-9/1	제주도	1/5

미세먼지

서울	10	좋음	대전	8	좋음
부산	12	좋음	경기	9	좋음
대구	8	좋음	강원	9	좋음
인천	10	좋음	전북	10	좋음
광주	10	좋음	제주	10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19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18일(목) 음력: 1월 7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무지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노을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맑음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해·번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싸늘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쾌청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특히 연상의 이성에 끌린다. 반복·중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소가 닭을 만나는 날이다.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닭날이다. 호랑이띠는 혈기왕성하여 무언가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한데 닭은 브레이크를 거는 형국이다.	셜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 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닭날로 재살일이다. 토끼가 닭을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닭날이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 또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뱀띠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한데 오늘 닭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격이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득세하게 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우비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먹구름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파도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쾌청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비바람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은 닭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한 말은 한낮을 의미한다. 지나친 밝음으로 타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오늘 양띠생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관계를 조심하라.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식할 수는 없다.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오늘은 닭이 닭을 만난 날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육해살 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생과 대화하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재살일이다. 재살 일에는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의 실력자를 움직여 큰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다.